

“중국이 선을 잃는다면 동이에게 묻게 될 것이다”

〈禪〉

〈東夷〉



35 성주산파의 중심지 성주사지

아무래도 허전했습니다. 짐작은 했더라도 막상 현장에 서니 짐작보다 큰 허전함이 몰려 왔습니다. 사방은 녹음이 짙어 푸르고 하늘도 구름 한 점 없는데, 순례자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성주사지.

사적 제307호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는 통일신라 말에 유행했던 선종 사찰의 하나인 성주산파의 중심지이다. 백제시대에는 전쟁에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오합사(烏合寺)라는 절이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에 김인문이 이 지역을 봉지로 맡은 이후 신라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 후 당에서 귀국한 남해화상(南海和尙 800~880)이 왕자 혼(昕)의 요청으로 이곳에 중창한 것이 성주사이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에 2차에 걸쳐 크게 고쳐 지었고, 조선시대에도 중창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절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현재의 중심사역 외에도 주변에는 많은 건물자리가 있는데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와 어울려 웅장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경내에는 최치원이 지은 남해화상 백월보광탑비(白月佛光塔碑, 국보 제8호)를 비롯하여 오층석탑(보물 제19호), 금당 뒤편에 있는 3기의 삼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물 제20, 47호), 석등이 있고 발굴 결과 백제시대 와당을 비롯하여 소조불, 비석 파편, 석재 조각품이 발견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비석 머리와 받침이 있다.

이 지극히 간단한 안내문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늠하려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했지만, 성주(聖住)의 천연함이 무너져 공적의 가르침을 펼치는 드넓은 옛 절터에서 구(求)하려는 것이 너무 많은 탓인가 봅니다. 정연하게 둘러쳐진 돌담을 두고 관람객들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나 카페에 그 정연한 돌담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무너져 내려 텅 빈 절터를 둘러친 돌담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담이란 것이 안과 밖의 경계이지만, 그 본질조차 허물어야 옛 절터를 오늘 의 도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도가 없는 곳으로의 '부도발 기행', 구산선문의 찬란했던 성역을 비롯한 옛 절터에는 부도는 없고 탑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비라도 있어 선지식의 제왕을 느낄 수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허전함의 파도는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컸다고 전하는 성주사 옛터



석탑과 남해화상탑비만 남아 있는 성주사지.

를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공간 가득 건물이 들어 서 있다면 얼마나 웅장할까를, 그 부질없는 소망이 몇 기의 탑과 금당터, 불빛 사라진 석등과 못난이 불상만이 지키고 있는 절터가 주는 허허로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고운 최치원의 명문장이 신라시대 최고의 비석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가 있어 성주사지는 여전히 성주(聖住)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최치원의 사산비문(四山碑文) 가운데 하나인 백월보광탑비에는 남해 화상의 생애와 당대의 여러 정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파손된 거북이는 한쪽만 남은 팔로 허공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통통한 다섯 발톱에는 웅비의 힘이 서려있고 겹무늬로 표현된 육각의 귀갑문양은 귀한 분의 빗물을 짙어진 영광을 말하는 듯합니다. 보호각 천장에 바짝 닿아 있는 이수도 화려하고 늘름한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산물인 남포오석으로 이루어진 몸통은 그 크기가 신라시대의 것 가운데 가장 큼니다. 비의 전체 높이는 4.55m, 몸돌 높이는 2.63m, 폭 1.57m, 무게42Cm입니다. 유월의 오후 햇살이 비껴드는 비각 그늘에 앉아 비문의 해석본을 읽습니다.

“대사는 법호가 무염(無染)이며 원각조사(圓覺祖師)인 달마의 10세손이다. 속성은 김(金)씨로 무염왕이 8대조가 된다. <중략> 9세에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외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고 칭송하였다. 12세를 넘어서는 9류가 비좁다 하면서 뜻을 불교에 입문하는 데 두었다.”

남해 화상은 나고 자란 곳에서의 신분적 정체성이 반듯합니다. 황손이라는 사실과 범상치 않은 태몽과 어릴 적의 행동거지가 이미 대덕으로서의 기틀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문장이 최치원이 그런 기미를 놓칠 리가 없었으니 비문은 5천 여 자에 이르는 것이겠습니

다. 9류란 중국 한대(漢代) 학문의 9개 유

를 들이켜서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외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고 칭송하였다. 12세를 넘어서는 9류가 비좁다 하면서 뜻을 불교에 입문하는 데 두었다.”

남해 화상은 나고 자란 곳에서의 신분적 정체성이 반듯합니다. 황손이라는 사실과 범상치 않은 태몽과 어릴 적의 행동거지가 이미 대덕으로서의 기틀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문장이 최치원이 그런 기미를 놓칠 리가 없었으니 비문은 5천 여 자에 이르는 것이겠습니

다. 9류란 중국 한대(漢代) 학문의 9개 유

를 들이켜서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외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고 칭송하였다. 12세를 넘어서는 9류가 비좁다 하면서 뜻을 불교에 입문하는 데 두었다.”



고운 최치원의 비문이 빼곡하게 새겨진 남해화상 탑신.

말씀을 청하니 대사가 답하여 '주풍(周豊)이 노공(魯公)에 대하여 한 말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기(禮記)>에 드러나 있으니, 청컨대 좌우명을 삼으소서' 라고 하였다.”

신라 제 47대 현안왕이 즉위 했을 때의 코치는 유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대의 큰스님이 불법(佛法)을 말하지 않은 것이 의외지만, 생각해 보면 정치하는 사람의 마음은 현실적이어서 하고 시류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 화상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풍은 노나라 애공(亥公) 때의 은사(隱士)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예의(禮義), 충신(忠信), 성실(誠實)이 있어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훈(校訓) 같은 이 세 단어가 왕이 몸과 마음으로 유지해야 백성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니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능관인(能官人)입니다.” 이 한마디는 경문왕의 대를 이은 헌강왕이 경문왕의 빈소에서 남해 화상에게 산사로 돌아가지 말고 곁에서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한데 대한 답입니다. “능력 있는 관리를 등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멘트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기에 코치도 현실적이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능력 있는 자가 자리를 잘 지키는 세상이던가? 돌이켜 보고 살펴볼 일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있는 것만큼 다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부적절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

으므로 생기는 부조리와 불협화음이 세상을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법이니 말입니다.

성주사의 전성기, 무염 화상의 시대에는 머무는 대중에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남해 화상의 제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니 그 가르침의 규모나 화상의 덕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너르고 큰 도량에서 남해 화상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였을까? 대덕의 대화가 언설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비문에 전하는 가르침의 대강을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사는 성품이 공손하고 삼가며 화합의 기운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중략> 빈객을 대할 때는 일찍이 존비(尊卑)의 차별을 두지 않은 까닭에 <중략> 생도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이 마음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지, 어찌 도가 너희를 멀리 하겠는가. <중략>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 나의 굶주림을 구하지 못한다.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교(敎)와 선(禪)이 같지 않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종지(宗旨)를 보지 못하였다. <중략> 고요히 앉아 참선하여 마음의 근본을 쉬는 것이 성인에 가까울 진저.”

당대의 학식으로 따를 사람이 없었던 최치원은 남해 화상의 제자들이 기록한 행장을 바탕으로 이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용한 이 가르침들은 평소 남해 화상이 가장 절실하게 제자들을 훈육했던 내용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과 교를 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러한 분별심으로 수행의 물을 흐리는 무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비문에 전하는 남해 화상의 중국 구도기 역시 오늘날의 불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일컫습니다. 남해 화상은 험한 백강을 이겨내고 중국에 도착하여 많은 절을 순례하며 '안살림'을 채웠습니다. 마조의 법을 이은 여만과 보철은 법을 전하며 “옛날 중국이 선(禪)을 잃는다면 장차 동이(東夷)에게 묻게 될 것이다”라 했습니다. ‘회창의 난’을 맞이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기까지 남해 화상의 중국 여정은 2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념으로 도를 구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주저 없이 보살행을 하여 ‘동방대보살’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구원이 지극한 사람은 베푸는 것도 지극한 법입니다.

성주사지에 도착했을 때의 허전함은 남해 화상의 비문을 읽으면서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터보다 마음에 새겨지는 가르침이 더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상당한 유물이 발굴된 데 이어 백제문화재연구원도 진행하고 있는 제8차 발굴 작업이 절의 남서쪽 영역에서 한창입니다. 발굴단이 캐 낸 유물의 유형성과 탑비에 아로새겨진 가르침의 무형성이 하나로 읽혀지고 느껴질 때 성주사는 다시 성인이 머무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남해화상 일대기 최치원의 명문장으로 남은 탑비 웅장

2000여 대중 머물던 구산선문 최대도량 발굴작업 한창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사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